

한국 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 영 춘*

目 次

- I. 서 론
- II. 상업교육의 환경변화
- III. 한국 상업교육의 문제점
- IV. 한국 상업교육의 개선방향
- V. 결 론

I. 서 론

상업교육은 실업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상업에 관한 교육을 과학적으로 취급하는 학문이다. 상업교육을 규명할 때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업이란 생산과 소비간에 놓여 있는 인적, 장소적, 시간적, 수량적, 품질적 등의 경제적 분리를 연결시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와 같이 본원적인 상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부동산, 광고, 여행, 컨설팅, 보관, 유통, 운송, 통신 및 정보 등의 서비스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상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또한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간행동의 특성을 계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업교육이란 상업에 종사할 직업인이나 교육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불과 수 십년 동안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원천은 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상업교육과 교수

교육의 경제적 역할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을 상정할 때 교육부문 가운데 경제부문과 가장 가깝게 접목하는 부문이 산업교육과 과학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교육은 한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산업교육정책은 산업화 전개에 따라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요구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되도록 기대한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교육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 및 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1960년대에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실업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 시기에 산업교육을 강조한 것은 공업화 추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 수출증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산업인력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업계 학생의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1970년대에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문교부(현재 교육부)는 상업계 학교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매년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장학방침의 하나로 채택하여 산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하여 상업계열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여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기회가 확대하게 되었으나, 산업구조의 수요에 대응하거나 교육기회의 남녀평등화를 실현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의 결과는 아니었다. 1980년대에는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증대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80년대 말에는 심각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 당시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등한시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의 유지를 위해서나 또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방치 상태로부터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은 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교육은 대학교육기회 확대정책에 따른 일반계 고교 진학 선호도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가 담당했던 직업교육적 기능이 전문대학으로 전이되는 성향에 따라 상업계 고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사회수요 감소로 인하여 산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침체 내지는 쇠퇴기를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이자 생활 단위인 지

구축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교육분야에서도 국제화·정보화·자율화·지방화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로 교육개혁이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은 각 국가마다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도 있고,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쟁의 심화와 협력과 공존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 나라는 1994년에 문민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운용체제를 정상화하고 효율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1995년 5.31에 제1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996.2.9, 1996.8.20, 1997.6.2에 각각 제2차, 제3차, 제4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2차 개혁방안에서 30개 과제중 20개 과제가 신직업교육체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에 즈음하여 이를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업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상업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상업교육은 일반교양교육과 직업교육측면에서 위상이 재정립되어질 때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업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상업교육의 일차적인 위기는 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의식 즉 정체성의 위기에서 나타난다. 현재의 상업교육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태도가 부정적이고 사회적 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지도와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따른 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상업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업교육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상업교육의 실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상업교육의 환경 변화

21세기를 향한 상업교육환경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ダイナミック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개방화·국제화·다양화·다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도 지식의 급격한 증가, 첨단기술의 발달 및 정보의 대량 생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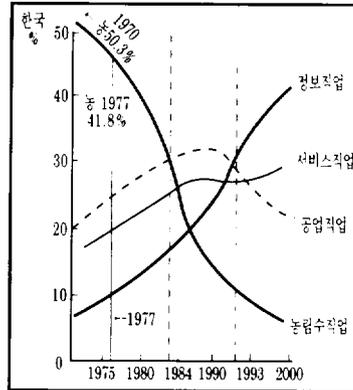
따라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업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학교변화 속도가 산업사회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상업교육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업교육의 목적,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시설 및 장비 등도 계속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교육은 기초능력(basic skill) 및 일반직무 수행능력 함양에 교육목적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환경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산업구조가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발달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의 단순한 산업구조에서 보다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의 현상과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동화, 전문화의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으로도 국가간에 개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화라는 말에는 국가간 경쟁의 심화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상호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가 모든 국가의 지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21세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흐름은 정보화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주도하는 정보화사회 내지는 지식사회로의 변화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Friz Malchlug은 지식산업을 그의 저서에서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현상에 주목하고 이것을 제3차 산업에서 독립시켜 지식·정보산업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라 한국의 2000년대까지의 산업구조를 추정할 것이 [그림 1]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제1차 산업에 중

〈그림 1〉 한국의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천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2000년』, (1987. 6월호), p.81.

사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반면에 지식·정보산업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면 2000년대에 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40%를 상회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30% 정도로 증가하여 지식·정보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0% 이상을 점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인 미래의 충격에서 지적하였듯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는 사회 각 부문에 광범위하게 변화를 강요하지만,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난 개혁에 대한 대비를 강요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의 책무가 현재의 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게 할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를 시사한다.

따라서 상업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업교육부문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지식·정보화에 따라 교육목표가 달라질 것이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업교육의 목표를 산업사회의 구조, 인적자원의 수급상황, 지역사회나 학교실정 등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직

업인양성교육을 목표로 하여 교육현장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사회가 전문화·다원화·다양화되고, 지식·정보의 추구가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목표는 가치 창조적 인간, 능동적인 목표개발형 인간, 개인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협동적인 인간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에 따라 교육내용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교육이다. 정보처리 교육이라 할 때는 컴퓨터 조작법, 프로그래밍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교육이라고 하면 이 정보처리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는 동시에, 컴퓨터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하는 학습으로의 목표를 넓혀 가는 것이다. 정보화로 인해 사회가 전문화·세분화되고 정보·지식의 탐색, 저장·창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이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사회생활에 있어 정보능력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관리능력 등을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교육내용이 정보의 축적이나 지식의 축적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탈피하여 정보를 다루는 데 관련하여 사고하고,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고등정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안목,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구성하는 능력, 어떤 정보가 타당하고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비판능력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학습내용이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상업교육은 상업에 대한 교육(기존 상업교육)과 상업을 위한 교육(직업 상업교육)으로 분류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상업교육 교육내용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시대에서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비즈니스와 소비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창업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은 창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총칭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교육부문에서 자영농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업교육에서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능력개발이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상업교육은 취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창업능력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정보기술의 발

전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용역·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와 같은 교육이 요구된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는 사이버 비즈니스라고도 하는 이른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 판매, 대고객 마케팅, 조달 등의 거래행위를 뜻한다. OECD는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다양하게 부각되기에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반영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직업 상업교육에서는 직업지식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가치교육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밀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치교육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체제, 이데올로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기존의 가치체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고, 심하게는 가치관의 붕괴도 있을 수 있다. 한 형태의 사회가 다른 형태의 사회로 변화될 때는 거기에 적용된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과 그 교육은 필수적이다. 정보, 통신, 컴퓨터 등의 새로운 문화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복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역작용이 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과 가치체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보화는 교육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의 교육의 방법은 산업사회의 모습처럼 일대 다수의 형태로 교사에 의한 집단교육이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은 교육의 본질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방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즉 일대 다수의 일방향적 정보전달이 아니라 일대일의 쌍방향적 정보전달과 기계와 학습자와의 정보전달이 가능해 졌으며 집중식이 아닌 분산형의 정보전달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지식·정보 전달방식의 기술혁신은 교육방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과학교육은 평생동안 교육적 작용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의 장도 물리적인 장소에서 공간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은 문제의 처리 방법과 과정을 중요시 하며, 학습보조 도구로써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른 교육자료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동감 있고 유용한 컴퓨터 교육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세계화개혁의 중심고지이자 관건이다. 교육개혁에 최우선을 두는 세계화전략을 펼쳐야 한다. 교육개혁은 세계화시대의 교육일류국가를 만들고, 평생학습사

회를 실현하며, 수준 높은 시민사회와 도덕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비전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은 자율과 개방, 창의와 경쟁에 입각한 교육체제와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큰 물줄기를 새로이 잡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다음 두 가지를 그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지식정보문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창의력, 자율성,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 협동작업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도덕적으로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지구환경시대, 시민참여시대, 지방화시대, 문화우위시대에 걸맞고, 우리 국가를 문화도덕적 국가로 만드는 데 부합되는 시민적 덕성과 문화적 소양, 그리고 도덕적 자질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교육정책방향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그리고 열린 평생교육과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영역이 확대되고 아울러 직업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기존의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비서과 이상 7개 학과 이외에 사무자동화과, 상업외국어과, 유통관리과, 경영정보과, 유통경제과, 관광통역과, 통상정보과, 유통정보과, 세무정보과, 품질관리과, 상용영어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사이버정보과, 전산과, 정보관리과, 컴퓨터디자인과, 경영영어과, 통상외국어과,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 등의 19개 학과를 현재 전국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미래의 산업사회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교육 내용의 변화현상은 단지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할 목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며 그 졸업생이 동일계열의 대학 진학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교육개혁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 상업교육의 문제점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다. 산업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구성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학교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이러한 환경변화의 추세에 잘 맞추어져야 한다. 상업계 고교의 상업교육은 그 기본방향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초급 전문인 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원인중의 한가지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업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상업교육 방법의 문제

상업교육도 직업교육의 한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은 실습 내지는 실무가 중요하다고 본다. 상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에서 교육방법은 교사의 전통적인 강의위주의 교수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실습 내지는 실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교육과정상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실습 내지는 실무시간마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사위주의 강의 형식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교육에서 가장 바람직한 학습원리는 "learning by doing" 즉 실천학습이다.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상업교육의 평가기준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에서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다. 교사위주의 교수방법, 주입식 강의의 상업교육은 실습 내지는 실무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업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의위주의 교수방법에 의존하여 왔고, 실습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 실습·실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도 이유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상업교과가 흥미 있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교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기 보다는 지루하고 잡다한 이론을 암기하게 만드는 과목으로 이해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상업교육 방법의 문제점으로 산학협동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현장실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산학협동체제가 가장 미비한 학교가 상업계 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과 기업내 교육과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여 상호 협의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침서가 개발

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과 통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상업계 고교생의 진로지도상의 문제점

실업교육은 직업교육이고 그 중에서 상업교육은 상업에 관련된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목적에 부합하여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한 학생에게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특히 상업계 고교생의 대다수가 주위환경과 비자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것이 진로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고 있다. 상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 가운데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수 없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상업계 고교의 근본적인 목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고 올바른 진로지도가 확립될 수 없다.

실업계 고교(농림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및 해양계, 가사 및 실업계) 가운데

〈표 1〉 상업계 고교의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개교(%)

연 도	실업계고교		상업계고교		학생수(B/A)
	학 교 수	학 생 수(A)	학 교 수	학 생 수(B)	상업계고교
1970	481	275,015	154	119,095	43.3
1975	479	474,868	182	218,652	46.0
1980	605	764,187	232	323,616	42.4
1985	635	885,962	227	477,900	53.9
1990	587	810,651	208	454,806	56.1
1991	617	804,021	219	444,113	55.2
1992	677	812,492	225	437,070	53.7
1993	718	832,028	238	433,830	52.1
1994	738	851,495	241	432,722	50.8
1995	762	911,453	248	448,732	49.2
1996	771	939,433	248	453,169	48.2
1997	771	960,037	248	456,327	47.5
1998	772	927,408	247	430,745	46.4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70~1998).

상업계 고교가 차지하고 있는 학생수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56.1%를 정점으로 하여 1998년도에는 46.4%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 고교의 출신을 기업 사회에서 가장 높은 선호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특정 계열에 편향되어 있을 경우 급격한 산업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도 또한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상업계 고교의 학생수가 비대하게 증가해 짐에 따라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도 따르지만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직장을 갖지 못함으로써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전문대학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가 팽창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다.

상업계 고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 가운데 상업체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1992년 취업률이 90.4%로 가장 높은 시점으로 하여 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에는 63.7%로 취업율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기업들의 인사정책의 변화로 상업계 고교 출신자들의 취업

<표 2>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현황

단위 : %

연도 \ 계열	농 립 계	공 업 계	상 업 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열
1986	43.7	70.0	59.4	65.4	61.0
1987	58.0	78.1	68.4	74.7	80.7
1988	71.3	83.2	77.4	74.3	90.7
1989	78.6	84.0	82.2	80.7	90.9
1990	81.2	83.1	84.6	83.9	87.8
1991	85.1	87.4	88.5	84.1	96.3
1992	85.8	87.3	90.4	86.7	61.2
1993	84.7	85.2	88.8	82.4	74.6
1994	79.6	81.4	86.2	77.7	60.2
1995	74.1	78.8	83.8	80.8	70.9
1996	69.1	77.8	81.1	80.0	56.3
1997	62.1	68.7	74.7	73.9	41.3
1998	48.1	55.7	63.7	51.7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89~1998).

기회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 자율화로 인하여 대학의 문호가 넓어지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출신자가 대량공급 되다 보니 노동시장의 수급이 불합리하게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계 고교의 졸업자들의 진로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 학교단계별 하향취업 비율

단위 : %

학 교 단 계	하 향 취 업 비 율	
고 교 졸 업	인 문 계	33.8
	상 업 계	29.2
	공 업 계	19.8
전 문 대 졸 업	인 문 계	53.8
	이 공 계	40.3
대 학 졸 업	인 문 계	52.1
	이 공 계	53.2

자료 : 어수봉, 평생교육훈련체제의 확립 (199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업계 고교 졸업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과잉 공급되고 있음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취업자의 21.7%는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상업계 고교 졸업 출신자들의 29.2%가 중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학력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원낭비이자 손실이다. 또한 본인의 학력에 비하여 하위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불만이 팽배해지고, 빈번한 이직과 전직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업계 고교의 교육환경이 다양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6개 전공 학과를 세분화시켜 개설되어 있음을 앞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과연 부족한 시간과 주어진 수업 년한 내에 전문과목을 터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며, 또한 기업 사회에서 상업계 학교 교육을 인정하여 인력을 흡수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현재 상업계 고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문학과는 전문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과와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상업계 고교의 인력 양성기관은 취업 위주의 교육 중심이라기 보다는 전문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상업계 고교는 취업 위주의 교육장이 아니라 진학 위주의 인문계 고교의 성격을 띠고 진로교육에 치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업계 고교 가운데 진로지도에 가장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계열이 바로 상업계 고교이다. 이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취업지도에 열정을 갖고 학생지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도 겸해야 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상업계 고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94년 기준으로 볼 때 49.3%로 OECD의 평균인 20.4%, 미국의 38.8%, 호주의 41.7%, 프랑스의 29.0%에 비하여 교육열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가운데 상업계 고교의 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진학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4〉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진학률 현황

단위 : %

연도 \ 계열	농 립 계	공 업 계	상 업 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열
1986	9.9	13.2	7.1	12.9	6.5
1987	8.5	13.1	5.6	9.3	8.3
1988	8.0	10.0	4.2	10.3	3.6
1989	8.2	10.0	3.2	9.6	4.5
1990	7.6	8.3	2.8	8.9	7.2
1991	6.1	7.8	2.0	8.6	2.1
1992	7.1	9.0	2.6	9.7	3.5
1993	7.3	10.9	3.4	6.5	11.6
1994	12.8	16.3	7.1	11.3	36.0
1995	18.1	18.5	9.6	11.3	27.3
1996	22.3	20.1	12.5	13.8	39.6
1997	29.8	28.6	19.0	20.7	52.9
1998	37.4	36.4	25.8	27.0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86~1998)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진학률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이한 것은 상업계 고교의 진학률이 1990년 2.8%에서 1998년에는 무려 25.8%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 고교의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 있는 교과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인문계 교육과정을 활용하게 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업계 고교의 교육 질이 낮아 학생들은 취업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 교육수요자 입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분야의 공부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3.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점

실업계 고교의 학생 질적인 수준향상은 전담 교사에 달려 있다. 직업교육이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상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성을 살려보기 위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아님을 감안 할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포부와 긍지를 갖도록 키워 주고 학습의욕을 높이는데 교사의 역할이 지대하다.

상업계 고교 학생들 중에는 상업 및 경영에 관련된 과목 자체에 흥미가 없고, 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전 단계 학습의 적정성에 문제를 가진 학생이 많아서 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상업계 고교에서는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재의 교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주입식 교실내의 강의 학습방법에 의존하다 보니 상업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창의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상업계 고교에서의 전공학과가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무려 26개 학과가 확대편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교사수급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존의 교사양성 체제하에서 배출된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실무 능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실습기자재 활용에도 숙달치 못한 교사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상업계 고교의 명칭 변경과 과다한 학과 개설이 경쟁력 있고 질 높은 교육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질적인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1998년도 교육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상업 자격증 과목담당 교원 수는 5,743명으로 이 중 자격증과목 및 타과목 담당교원(상업)이 413명(공립학교 120명)으로

1997년의 230명(공립학교 94명)에 비하여 무려 1.8배에 달하는 교원이 증가 했으며, 또한 자격증과목 아닌 타담당교원(상업)은 623명(공립학교 221명)으로 1997년의 81명(공립학교 21)에 비하여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전공 교원에 비하여 가장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 고교의 교원이 비전공 분야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결과로서 수업의 질적인 문제와 학생의 질 향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상업계 고교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상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기술 및 기능 자격검증기준과 통합성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졸업을 위하여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시켜야 되고, 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기술 및 기능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편성하여 지도해야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업계 고교는 사실상 세가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기술 및 기능검정자격증의 취득율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체의 직무 요구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상업계 고교의 학생 지원율의 감소와 중도 탈락율 증가

상업계 고교를 비롯한 실업계 고교는 국가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일각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해 바라보는 왜곡된 직업관과 직업교육정책의 잘못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대학도 직업교육기관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그의 전원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만이 직업교육기관이라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인도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사라지고 민주적 직업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이바지하는 직업인 그리고 직업교육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업계 고교를 비롯한 상업계 고교는 중학생들의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는 지원율이 미달사태로 인하여 교사가 직접 모집을 위하여 일선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진학을 선호하고 있

〈표 5〉 실업계 고교의 학생 지원을 현황

연도 \ 계열	농림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평균
1981	1.16 : 1	1.50 : 1	1.37 : 1	1.33 : 1	1.30 : 1
1982	1.06 : 1	1.53 : 1	1.38 : 1	1.33 : 1	1.40 : 1
1983	1.10 : 1	1.55 : 1	1.31 : 1	1.14 : 1	1.36 : 1
1984	1.08 : 1	1.68 : 1	1.37 : 1	1.36 : 1	1.43 : 1
1985	1.01 : 1	1.61 : 1	1.35 : 1	1.26 : 1	1.39 : 1
1986	0.94 : 1	1.67 : 1	1.38 : 1	1.15 : 1	1.42 : 1
1987	1.06 : 1	2.06 : 1	1.52 : 1	1.32 : 1	1.62 : 1
1988	1.01 : 1	1.79 : 1	1.56 : 1	1.20 : 1	1.56 : 1
1989	0.99 : 1	1.71 : 1	1.46 : 1	1.25 : 1	1.49 : 1
1990	1.00 : 1	1.72 : 1	1.51 : 1	1.35 : 1	1.52 : 1
1991	0.92 : 1	1.61 : 1	1.20 : 1	0.90 : 1	1.49 : 1
1992	0.87 : 1	1.27 : 1	1.06 : 1	0.75 : 1	1.19 : 1
1993	0.81 : 1	1.26 : 1	1.02 : 1	0.82 : 1	1.10 : 1
1994	0.99 : 1	1.40 : 1	1.11 : 1	1.37 : 1	1.20 : 1
1995	1.18 : 1	1.27 : 1	1.16 : 1	1.33 : 1	1.20 : 1
1996	1.14 : 1	1.15 : 1	1.07 : 1	1.21 : 1	1.11 : 1
1997	1.12 : 1	1.19 : 1	1.08 : 1	1.12 : 1	1.12 : 1
1998	1.10 : 1	1.11 : 1	1.07 : 1	1.01 : 1	1.08 : 1

자료 : 교육부, 교육과학국(1993), 1993년도 업무현황, 교육부, P.15.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94~1998).

는 여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순수한 남자 실업계 고교가 남녀 공학의 고교로 전환시키는가 하며 전문대학에 진학을 유리하게끔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국 상업계 고교에서의 학생수가 430,745명(1998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347,907명이 여학생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전체비율이 19:81로 여학생의 직업교육 전용학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학 선호 사상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인문계 고교에 비하여 실업계 고교가 지원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나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상업계 고교의 학생 지원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

육열이 매우 높은 관계로, 현재의 학생들이 대학입시방식으로는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계속교육을 위해서는 인문계 고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업교육은 일반교육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업계 고교는 성적이 낮은 중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며, 실업분야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라고 인식하고 실업고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신설되거나 이주되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 실업계 고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팽배해 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 특히 상업고교에서는 교사들이 교내외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계 고교 교사들이 비행학생, 탈선학생, 학생의 품행 등에 관하여 선도하기 위하여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충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실업교육은 교과교육 이외에도 학생지도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개혁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방향에 맞추다 보니 실업계 고교가 소외되고,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사제지간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실업계 고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부족하거나, 가정불화나 편부모의 가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부나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실업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교의 중도 탈락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상업계 고교에서의 탈락율의 증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상업계 고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당시에는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1,049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탈락한 유형별로 보면 가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품행이고, 그 외에도 인문계 고교고의 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상업계 고교를 비롯한 실업계 고교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가기술자격취득의 감소

직업교육은 유능한 기능 인력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졸업생들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공신력 있는 자격 검정제

〈표 6〉 실업계 고교의 중도 탈락률 현황

단위 : %

연도 \ 계열	농림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평균
1981	9.8	7.4	4.3	12.0	6.0
1982	10.3	7.9	8.0	10.1	8.2
1983	15.1	11.0	9.0	16.5	10.4
1984	18.7	11.3	9.5	16.8	11.0
1985	17.6	12.5	15.3	12.0	14.8
1986	18.7	13.5	9.5	24.1	11.7
1987	18.3	12.6	8.0	17.0	10.5
1988	19.9	11.2	11.6	18.0	12.3
1989	20.8	20.6	17.9	11.4	18.8
1990	20.0	10.7	6.0	7.4	8.5
1991	19.5	8.5	4.6	16.6	7.1
1992	18.7	3.05	1.42	9.20	8.09
1993	21.1	6.7	5.7	16.8	12.6
1994	18.9	6.5	6.0	20.0	12.9
1995	19.9	7.9	8.8	21.9	6.5
1996	18.0	8.6	7.3	24.0	7.8
1997	18.3	11.9	9.9	19.1	0.9
1998	18.4	10.9	11.8	14.2	12.0

자료 : 교육부, 교육과학국(1993), 1993년도 업무현황, 교육부, p.16.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3~1998).

도이다. 우리 나라는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에 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국가 기술자격제도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총 737개 종목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의 질 관리의 하나로 자격검정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직업교육의 양적 확대에 관해서는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직업교육 평가체제나 자격 검정제도 그리고 양성된 인력의 배분 및 관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관심이 적다. 요즘 IMF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그 직장을 택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일선의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는 숙달된 기능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우선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특히, 상업계 고교의 졸업자들 가운데 취업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공인이 인정하는 자격증취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된다.

〈표 7〉 국가 기술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구분	상업	136,255	110,474	102,436	104,103	89,999	84,183	81,547	75,057
	합계								
계열	여자	118,600	95,837	88,597	87,967	77,396	73,899	72,722	6,754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91~1998).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업계 고교 출신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되지 않아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상업계 고교 졸업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격제도와 교육제도의 연관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정부 주도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면서 자격제도가 그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문제점도 적지는 않았다. 자격제도 운영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예산 부담, 자격취득 강조에 따른 직업교육기관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입장에서는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에서 평가하는 동일한 내용의 학습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에 자격기본법(1997.3.27)을 공포하여 자격제도의 의지를 적극 표현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자격이 개인의 인적자산에 대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노동시장에서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상업교육의 교육행정체제상의 문제점

상업교육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특성을 띠고 있는

교육분야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 직제하 정책입안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과학교육국에서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업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업교육의 진흥에 관심을 갖고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시·도 교육청의 실업교육전담 장학사·장학관의 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교감이 실업교과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교원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장교육에 경험이 많은 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위상 저하와 교원의 사기 저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직업교육을 수요로 하는 학생의 불만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IV. 한국 상업교육의 개선방향

21세기의 고도 산업사회의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업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상업계 고교의 사회적인 역할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업계 고교의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다 달은 것 같다. 학교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업교육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시대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상업교육의 주변환경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상업교육 방법의 개선

인간의 요구는 다양하며 모든 개인들은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그에 맞는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즉 모든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지적 능력이나, 적성, 성격,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업

계 고교는 각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수업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상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소 성적이 낮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업계 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학 교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분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교재내용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렵고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교재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교사는 교재내용을 재편성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학습 그리고 과제해결 중심의 수업형태로 유도하여야 한다.

학습방법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을 모듈(module)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모듈이란 어떤 학습주체 또는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달성해야 하는 몇 개의 잘 서술된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활동 여부를 알아보는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고안된 교수-학습과정이다. 이러한 모듈수업은 자율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어, 학생 스스로가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진로교육 개선

진로란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을 총칭하는 말로서 삶의 부분이다. 진로는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며, 임금을 받는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나이 들어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모든 일의 활동을 포함한다. 개인의 진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활동들이 있는데 교육, 직업, 가정,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진로를 구성하는 이들 활동들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 여러 시간대에 활동들을 결합하는 방식이 진로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결정이 진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 결정들은 개인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며, 누구와 보내며,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등이 반영되는 결정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이란 학생 개개인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과 의욕,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직업과정을 인식, 탐색, 선택, 계획, 준비 등의 과정을 통하여 현명하게

적용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개인의 장래 생활을 만족하고 풍요롭게 지도해 줌으로써 선택한 진학 및 직업에 들어서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주어진 환경에 적극 적응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지도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직업교육의 전제로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은 직업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인력자원자본의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도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교육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인력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도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상업계 고교생들의 진로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 일생의 인생행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상업계 고교는 진로의 유형이 다양한 집합체이기도 하다.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취업을 희망하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사업을 위한 창업을 연구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 생활을 긍지와 만족을 만끽하면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책임감을 갖고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일 학년부터 진로교육에 중요성 깨우치게 하고 상담과 면담을 통하여 학생과 접촉하는 회수를 자주 가짐으로서 학생의 생활지도도 겸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 산업체 등의 통합적 노력으로 실천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계 고교를 지원하는 동기가 대부분 중학교의 성적이 부진함으로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으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에 진출하여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상업계 고교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회사원, 공무원 등 사무관리직을 희망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중되지 않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취업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

여 졸업생, 기업체, 지역사회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교육이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진로교육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대책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의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진로교육 모형개발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 개발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취업실무과목 신설되어 수시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산학협동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3.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상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상업계 고교에서는 획일적이고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답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계 고교의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교과운영을 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학습준비 능력을 사전에 조사분석하고 그기에 맞는 학습내용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정부에서는 교사의 교재개발 연구와 학습개선을 위한 연구에 따르는 재원을 확충하여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개발자로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교육은 실무·실습이 또한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업교육에 실무·실습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인원에 맞도록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4. 교사의 질적 수준의 개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업계고교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 교사는 여기에 탄력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상업계 고교의 환경의 변화 가운데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명칭이 변경되는가 하면, 교육과정도 대폭 수정되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지고, 여기에 심화교육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자율화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과 진학에 유리한 특정 전문 직업분야의 학교가 신설 내지는 학교명칭이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수급이다. 특정분야의 전문 직업분야의 학교는 특수성에 맞는 교과운영을 해야하고 전문교과 담당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명칭은 시대의 변화에 걸 맞게 변경시켰다고 하더라도 교과교육내용이 변모하지 못한 학교가 허다하다. 기존의 교사가 단기연수 내지는 단기교육을 받고 부전공이라는 전공교과 교사로 변신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내용을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업교사의 교사양성체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교사는 타전공의 전문교과목을 담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도 이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업계 고교의 전공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만 전담교과 교사로 지도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만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질적인 향상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차선의 방법으로 대학의 진학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개선

상업계 고교는 상업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최근에 상업계 고교가 위기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환경이 빠른 주기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상업계 고교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업계 고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업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상업계 고교가 투자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계 고교에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게 되고, 학생 자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교육되고, 졸업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으로 양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질 높은 교수-학습방법, 교육적 목적으로 정교화된 각종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상업계 고교의 수요 확대 및 창출을 위해서는 전망 있는 분야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졸업 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스쿨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업계 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IV. 결 론

상업교육은 고도의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오는 과정에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특히 상업계 고교는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배출하여 왔으며, 소외된 계층의 많은 학생들을 흡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따라 사회진출을 하도록 그 역할을 해 왔다. 상업교육의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그렇게 무리 없이 대처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았던 요인도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 속도가 현재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겹치게 되고 진행 속도도 빠른 속도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업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됨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상업교육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음에 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짐에 따라 상업계 고교의 위기가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업계 고교의 문제점으로 상업교육 방법의 문제, 진로지도상의 문제, 교사-학습방법상의 문제, 학생 지원율의 감소와 중도탈락율의 증가, 국가기술자격취득의 감소, 교육행정체계상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가 양질의 수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교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진로지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구축과 운영이 요구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상업계 고교에 대한 의식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계 고교에 대한 직업적·교육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의식 전환 운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이 아닌 능력이 우선시 되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상업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식되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여건의 개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졸업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 우수교원의 유치를 위한 지원, 사회적으로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사회로 대변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환경과 우리 나라의 고도산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구조가 다원화, 세분화, 전문화, 되면서 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해서 실시되고 있는 상업교육은 경제, 경영 및 컴퓨터분야에서 첨단시대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요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업의 교육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상업교육은 국가의 산업 경제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을 양성,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도 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상업교육기관은 고도산업 사회를 지향한 국가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가 실업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부실한 교육정책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실업계 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수요자들이 실업계 고교를 선호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원, 1987.
- 강성원, “직업교육의 개선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1995. 10.
- 김성우 · 이용환, “교육개혁 실천과 실업교육의 진로”, 『직업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1996. 12.
- 김영화 · 박인종,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 체제의 대응” 한국교육개발원, 1990.
- 김영화, 한유경 외 “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 김재식, “교육수요자의 상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상교논총』 제16집, 한국상업교육학회, 1998. 7.
- 김재식, “상업교육의 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3집, 1997.
- 노규형,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연구소, 1987. 12.
- 노규형,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연구소, 1989. 12.
- 신황호, “실업교육의 위상과 적합성” 『상교논총』 제5집, 1991. 2.
- 신황호, “직업교육 관점에서 본 상업교육의 효율화 방안” 『상교논총』 제8집, 1994. 1.
- 이무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기술 교육 강화” 한국교육개발원, 1998.
- 이상엽, “상업교육의 실상과 발전방향” 『상교논총』 제14집, 1997. 7.
- 이용호, “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4집, 1997. 7.
- 이용호, “한국상업교육의 개선방향” 『상교논총』 제7집, 1993. 2.
- 정영관, “21세기를 향한 상업교육의 진로” 『공주대 논문집』 제29집, 1991.
- 정철영,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규정” 『직업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직업교육학회, 1997. 12.
- 정철영,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방향” 『직업교육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제16권 제1호, 1997. 6.
- 최호규, “상업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3집, 199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97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1997. 4.
- 황정규, “정보화사회의 교육혁신” 『정보사회연구』 제1권 제1호, 통신개발연구원,

1989(창간호).

황정규, "정보화사회의 교육혁신", 『정보사회연구』, 1989, 가을.

Betty C. Fry, "Promoting Business Education", *Business Education Forum*, Vol. 52, No.3, 1998.

Betty C. Fry, "Business Education - A Look to the Future", *Business Education Forum*, Vol. 52, No.4, 1998.

Chi-Kim Cheung, "Business Education in Hong Kong after 1997",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73, July/August, 1998, pp.333-335.

Steve Brown and Jone Masten, "The Role of a Business School in an Emerging Country-The Case of Ghana",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 73, May/June 1998, pp.308-312.

Abstract

Directions for the Problem Points of Korean Business Education and its Improvement

Young-ch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s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in busines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 Korea. Business education as a vocational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and expended in quality and quantity as the resulted high economic growth. Today, the industrialized society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It has been progressing through high economic growth and highly mechanicaliz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society circumstances, business education is at a critical condition. Therefore, the business education must get over a crisi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business educ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First, business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with applications of teacher's teaching-learning methods relevant to the contents and goal of program, and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aterial based on the level of student's mental ability.

Second, most of students choose to enter the commercial high school because of their impecunious grades. Therefore, they should be rightly taught the education related with jobs in school so that they can get a job after graduation with sound view of job.

Third, restructuring the business educ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and diversity of curriculum in business education, and improving perceptions of society on business education are needed for successful business education.

Therefore, commercial high school education needs to overcome the obstacles and challenges.